

지상 법석

부처는 도 통했다고 높이 않는다”

기만 해도 기절초풍할 것처럼 생긴 물

참선의 위력

건이있어요. 그 물건이 앞으로 나와 발톱이나 이빨로 나를 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이 나를 눌러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열라사자 더러우요. 열라사자를 내 눈으로 보았어요. 그것이 나를 묶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와 나의 육신을 꼼짝도 못하게 하고, 숨도 못쉬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하나가 눈·귀·코·혀·몸·의식이 모두 마비가 되었어요. 그 물건이 내게 다가오기만 하면 꼼짝 못하고 죽을 지경이란 말예요.

저 물건이 나를 잡으러 오는 무상살비인데 저놈을 어떻게 잡아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젊었으니까 '네가짓 것이 아무리 그래 보아야 내가 용트림 한번하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 생각하고, 막상 해보니 나의 젊은 용기는 어림 없었어요.

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볼까 치면 더욱 숨이 막히고 울컥합니다. 맥이 정지되는 상태라 그냥 놓아두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듯 공부도 못하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 싶었지요.

명청하게 있어 봤지요. 그것이 도로 생겨나 볼 수 있도록 화두를 놓고 명청하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 물건이 다시 나타났어요. 정말 무섭고 징그럽게 생긴 물건이 날 억압하는데 그 고통은 형언할 수 없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레 먼저의 경험을 살려 죽기 직전에 다시 화두를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묶었던 것이 풀리고 정지되었던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눈을 떠보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어요. 위험한 일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았습니.

시험을 마치고 일어나 보니 바닥에 풀이 흥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사람 죽는 것이 어려운 만큼 태어나는 것도 굉장한 어려움이네요. 생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죽어 보았으므로 죽음을 쫓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을 부지런히 수행하여 통달하면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후에 기만하잖아 서 그 때의 일을 생각해보니 죽을 때 저승사자가 나를 쫓아와서 잡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도 겁날 것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또 한번 그러한

‘봄빛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똑같이 피어차별이 없고, 꽃가지는 긴 것 짧은 것이 저절로 그러하다.’ 그러나 꽃가지가 길건 짧건 분명한 꽃이며 제 나름의 꽃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꽃 모양은 제각기 아름다운데 꽃가지만 길고 짧은 뿐입니다.

요. 그때도 육신을 시험하기 위해 화두를 들면 그렇게 아프던 등허리가 편안해졌어요. 쌀집의 무게 보다 화두의 힘이 더 컸던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나쁜놈이라 욕할 때가 가장 참기 어려웠는데 그런 상대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하고 싸웁니다.

어디 화가 일어나나 안일어나나 화두로 시험해 보아야겠다 하고 화두에 들어가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정해 보이고 미운사람도 없어졌습니. 내 마음 속에 미운 생각이 없으면 상대방이 나하고 싸우려들지 않고 저절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때 세상 화두의 위력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두만 들면 문제가 잘 풀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일념으로 참선을 해보십시오. 미묘한 지혜가 나오며 천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이 나옵니다. 사업하더라도 참선을 하면 운영의 지혜나 난관 극복의 지혜가 나오며, 공동운영체로 화합하며 살 수 있는 슬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참선을 할 바에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생각조차 버려야 합니다. 참선한다고 누구한테 자랑하지도 말고, 상을 세워서 더욱 안됩니다. 참선을 할 때는 부처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선하는 것은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③

극락과 지옥 김성규

간혹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때면 언제나 가슴에 와 닿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어느날 바라문교도가 붓다를 찾아와 여쭙기를 "붓다여, 당신은 주장하기를 모든 과보를 스스로 짓고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바라문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비록 죄를 짓고 살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 우리 바라문교에 귀의하여 우리들이 그가 자재천(바라문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기도하면 그는 그곳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당신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를까?"하고 질문하였다. 붓다는 조용히 일어나 바라문을 데리고 뒷편에 있는 연못으로 갔다. 붓다는 물랭이를 하나 주워 연못으로 던지면서 바라문에게 물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에, 물이 연못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바라문여! 그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악업을 지으면 그것은 무거운

행을 떠나보기로 하자. 빛은 1초에 30만km를 달린다. 빛이 지구로부터 달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8초이며, 지구로부터 태양까지는 약 8분 걸린다. 태양에서 태양계의 끝에 있는 명왕성까지 가는데는 5시간 반이 걸리며, 은하계의 끝에 서 다른 끝까지 가는데는 약 10만광년(1광년은 빛이 일년동안 가는 거리를 말한다)이 걸린다. 은하계에서 또 다른 은하계로 추정되는 안드로메다성운까지는 약 190만 광년이 걸리며,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약 50억 광년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죽어서 가는 세상, 극락이나 지옥이 있는가?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환경조건이 비슷하여 고등생물이 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혹성이 수천 개 정도 된다. 이 혹성들 중에



실체 따로 없는 마음의 산물

돌맹이와 같이 지옥의 불구멍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며, 바른 생각을 하면서 착하게 살았다면 하늘을 날오는 구름처럼 그는 극락에 태어날 것이다.

바라문여!

결국 누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인 것이다. 이것이 곧 우주의 진리인 것이다.

모든 인간들에게 신비하게만 여겨졌던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은하수에 처음으로 망원경을 들여다어 항성의 대집단이란 것을 밝힌 사람은 갈릴레오였다.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을 증명할 수 있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발명하여 목성 주위를 돌고있는 4개의 위성을 관측한 것은 1610년 1월 7일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떤 신학자는 '목성의 위성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무용한 것이다. 그런 것을 하느님이 만들기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망원경을 '악마의 도구'라고 비난하였다. 이 사건으로 갈릴레오는 교회측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에 그 유명한 "프롤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의 두 대우주체계에 대한 대화"를 출판함으로써 두번째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카톨릭교회의 위안 때문에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였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리며 재판소 문을 나왔던 것이다.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번 우주여행을 떠나보려고 하자.

어떤 것은 극락이고 또 어떤 것은 지옥이 생어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혹성이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할 것이며, 조금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일 것이다.

결국 모든 혹성들의 조건은 다 같은 것이다. 즉 모든 혹성이 극락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극락과 지옥은 따로 존재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외적인 의미에서 극락과 지옥은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자유와 평등 문화가 흥한 정의사회를 구현할 때 그곳이 바로 극락이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불화와 이기심이 가득차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무시되는 사회문리가 두터져버린 그런 사회가 바로 지옥인 것이다.

내적인 의미에서 극락과 지옥은 자신의 문제로 귀착된다. 바른 실천윤리와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는 투명한 눈을 갖고 있어 항상 자애로우며 자유로운 사람은 그 스스로 극락을 이루어 극락에서 살고 있는 것이며, 욕심스럽고 화를 잘내고 어리석음이 가득차 시기하고 질투하여 항상 화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지옥을 이루어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내 마음 속에 극락을 이루면 은 우주가 불국토가 되는 것이며, 내 마음 속에 지옥을 이루면 우주에 전쟁과 질병과 고통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영남대 의대교수)

일념으로 참선을하면 지혜가 절로 나와 나를 잊을 바엔 잊는다는 생각도 버려야

그래서 화두를 사용해 보기로 작정했어요. 문득 만법귀일(萬法歸一)이란 화두를 들었습니다. 그 화두를 형식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만법귀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잠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나를 꼼짝할 수 없도록 결박했던 것이 저절로 풀어지면서 그 무섭게 생긴 물건은 점차 멀리 사라졌어요. 내가 화두를 들었더니 꼼짝할 수 없던 손가락이 움직여지고, 막혔던 숨통도 확 트였어요. 그토록 뜨려고 애를 써도 퍼지지 않던 눈을 떠보니 정상적이었어요.

내가 깨어날 때가 되어서 깨어나, 화두를 들어서 깨어났다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두도 안들고

일을 당했어요. 밤에 자다가 겪은 것 입니다. 기둥에 용을 새겨 붙여 놓았는데 사자가용왕이라 합니다. 열 사람 들은 그 용이 살아나면 큰일난다고 해요. 그레 제가짓 것이 아무리 사자가용왕 아니라 그 할아버라도 내겐 별것 이 아니다. 나한테 덤벼 보아라 하고 달려주었지요. 역시 전에 경험했던 나 환귀처럼 무서운 용이 달려들어 내 몸통이를 감기 시작했어요. 그레 얼마나 겁나는 실컷 잡아보라고 내버려 두었 습니다. 감아서 바짝 조이는데 그 힘이 대단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 숨이 막힐 지경이예요. 아! 사람이 죽을 적에는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면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았습니다. 공기의 인력이 얼마나 되는가 시험해 보기 위해 몸통이가 견딜 수 없을 때

까지 참아 보았어요. 점점 더 조여들어와 육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딱하니 화두를 들고 입경해 버렸어요.

마음 먹기 나름

그랬더니 용이 잡고 있던 몸통이가 슬슬 풀어졌어요. 정말 희안한 일이었어요. 참선이 좋다는 것을 그 때 알았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닌 실재였어요. 그래서 수 많은 수좌들이 밤낮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지요. 내가 실제로 경험해 보고 확실 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도 어려운 때가 무척 많았는데 가장 어려웠을 때가 수석사에서 정혜사로 쓸을 짊어지고 올라갈 때였어

선점이 아니고 나 자신이 실제로 체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참선하는 사람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는 것은 나를 완성하는 것이며, 자아의 완성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찾을 때 나와의 전경도 남과의 불화도 모두 사라져 안심(安心)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세계 인류의 평화는 나를 찾는 데서 시작하여 '나'를 찾는 사람들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한 법문이 좋은 법문이라, 쓸데없이 잔소리 하지 말고 그 입이나 좀 씻어라."

소년소녀 가장 돕기

대행스님
부산대 법회

참인간으로 사는 길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숭배를 받고자 오신 게 아니라 중생에게 "마음을 깨달아 부처 되는 길"을 가르치고자 오셨습니. 마음, 그 무궁무진한 대자유의 세계로 여러분의 일상을 이끌어 주시고자, 여기 대행스님의 법좌를 마련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충만한 삶, 영원한 자유인으로 나아가는 법열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장 소
KBS 부산홀 (남천동)

일 시
불기 2538년 11월 13일 (일) 오후 2시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한미음선원 부산지원 신도회

후 원
부산불교연합회 · 부산불교신도회 · 부산불교거사림회
부산불교실업인회 · 대한불교신문 ·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 부산 불교방송 · KBS 부산방송국

지원책해도
신도회장 이하경 협정 박성빈

한마음 선원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1
전화 (051)402-7077 / 팩스 (051)403-1077
포교실 465-1530

공명정대한 선거를 촉구하면서

1600년 한국불교사는 출가승단의 역할에 따라 평안이 교차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대중적 열망을 바탕으로 시작된 조계종의 개혁불사도 이제 과도기 상황을 마감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오늘의 개혁작업의 공과는 뒷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향후 종단 대표자를 선출하는 자리가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실시되는나 여부가 금번 개혁의 성과를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분위기는 그 열기로 인하여 자칫 개혁의 예렷했던 의지들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바 1600년 한국불교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냉철한 각오로 승가대중은 금번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각오 —

- 1. 금번 조계종단 대표자 선출은 문중과 이해관계를 떠나야 한다.
- 2. 후보자는 대중이 공감할 경력과 정책의 홍보를 통해서만 참여할 것이며 세속적인 방법은 철저히 배제하고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 3. 만에 하나 현 개혁 집행부가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면 중도와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인즉 개혁대중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엄정중립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혼란은 과거의 어떤 종단 분규 이상으로 중도 들을 절망하게 할 것인즉 사부대중은 금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 화합선장이 되어 감시의 역할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불법선거사태를 아래의 연락처로 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동림동문회
공명선거감시단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301호
전화 (02) 723-5263~5/722-2214~5
팩스 (02) 739-2047

석림동문회 사무국장 선중